

의과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취목적 및 학문적 효능감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안 도 희 · 김 옥 분

= Abstract =

Perfectionism, Achievement Goals, and Academic Efficacy in Medical Students

Doehee Ahn, PhD, Okboon Kim, MA

Department of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explored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achievement goals, and academic efficacy, hypothesizing that perfectionism and achievement goals affected academic efficacy in medical students. Of the 400 medical students surveyed from three universities in Seoul, 228 completed and returned the questionnaires yielding a total response rate of 57%. Their average age was 23.28 years.

Methods: Measures of students' perfectionism, achievement goals, and academic efficacy were obtained. Exploratory factor analyses were used to measur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daptive and maladaptive) and achievement goals (mastery, performance-approach, and performance-avoidance). Both scales confirmed the three subscales of achievement goals and two subscales of perfectionism through Principal Component Analyses and internal consistency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echniques were used to test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Results: It was found that adaptive perfectionism positively influenced students' academic efficacy directly and indirectly via their mastery and performance-approach goals. Moreover, maladaptive perfectionism influenced their academic efficacy indirectly via their performance-approach goals. However, maladaptive perfectionism did not influence their academic efficacy directly or indirectly via performance-avoidance goal.

Conclusion: Medical educators need to be aware that encouraging students toward adaptive perfectionism, which is psychologically less stressful, is valuable given these findings. Perhaps learning environments could be developed to enhance students' adaptive perfectionism, mastery and performance-approach goals, and subsequently academic efficacy.

Key Words: Perfectionism, Achievement goals, Academic efficacy, Medical students

교신저자: 안도희,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Tel: 02)820-5365, Fax: 02)827-0955, E-mail: dahn@cau.ac.kr

서 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의과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은 수많은 양의 새로운 정보를 학습해야하는 심리적 부담감, 시간압박, 여가활동을 위한 기회의 상실은 물론, 임상실습을 통해 직면하게 되는 환자의 심각한 질병 혹은 죽음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Enns et al., 2001). 또한 이들은 학업성취 면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이 최고 중의 최고라고 여겨왔던 것과는 달리, 의과대학내에서 자신의 학우들보다 성적이 뒤쳐지거나 또는 심지어 평균이하의 성적을 받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로 인해, 의과 대학생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울증과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Dyrbye et al., 2005; Henning et al., 1998).

이와 같이 의과 대학생들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겪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극도로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을 익히는 과정에서, 모든 일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수행해야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은 특히 의과 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데(Enns et al., 2001), 자기 스스로 극도로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해 나가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성향을 적응적 완벽주의(adaptive perfectionism)라 일컬으며, 반면에 자신의 수행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자신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으며, 심지어 최선을 다해 얻은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성향을 부적응적 완벽주의(maladaptive perfectionism)라 일컫는다(Bieling et al., 2004; Frost et al., 1993).

완벽주의는 성취상황에서 특정 목적을 향해 질주하는 개인의 기질적 경향성이라 할 수 있는 성취목적(achievement goals)에 영향을 끼치며(이미화·류진혜, 2002; Accordino et al., 2000; Dunn et al., 2002), 더 나아가 특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역량에 대한 판단인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에 영향을 주는 것(O'Brien & Page, 1994; Hart

et al., 1998)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은 자신의 유능감 계발을 위해 과제 숙달에 주력하는 숙달(mastery) 목적 지향적이거나, 또는 자신의 유능함을 타인에게 입증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수행접근(performance-approach) 목적 지향적인 특성을 보인다(이미화·류진혜, 2002; Dunn et al., 2002; McArdle & Duda, 2004). 또한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은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보이는 것(Breland & Donovan, 2005; Cavaco et al., 2003; Gutman, 2006; LoCicero & Ashby, 2000)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반면에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은 수행접근 목적 지향적이거나(Dunn et al., 2002; McArdle & Duda, 2004), 혹은 자신의 능력 부족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수행회피(performance-avoidance) 목적 지향적인 특성을 보이며(이미화·류진혜, 2002), 특히 이들 수행회피 목적 지향적인 학생들은 낮은 자기 효능감을 보이는 것(Wolters, 2004)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연구들이 학생들의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과 성취목적 또는 완벽주의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어진 반면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학문적 역량에 대한 판단이라 할 수 있는 학문적 효능감(academic efficacy)과 완벽주의 그리고 성취목적간의 상호관련성을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극심한 경쟁적 학습환경과 과다한 학습량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의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성취목적과 학문적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의 성취목적이 이들의 학문적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3개 대학교에 재

학 중인 의과 대학생 400명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하였으며, 이들 중 응답이 불성실한 172명을 제외한 228명을 최종분석 대상(회수율 57.0%)으로 하였다. 이들 중에는 C1 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115명, K 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71명, 그리고 C2 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42명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06명 (46.5%), 여학생이 104명 (45.6%)이었으며, 18명 (7.9%)은 성별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학년별로는 예과 1학년이 65명 (28.5%), 예과 2학년이 35명 (15.4%), 본과 1학년이 34명 (14.9%), 본과 2학년이 40명 (17.5%), 본과 3학년이 37명 (16.2%)이었으며, 17명 (7.5%)은 학년을 밝히지 않았다. 최종분석 대상의 연령범위는 18.42세에서 34세였으며, 평균연령은 23.28세(표준편차, 2.73)이었다.

나. 검사도구

1) 완벽주의

의과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Frost et al.(1990)가 개발한 Frost의 다면적 완벽주의 척도(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어색한 어휘는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FMPS는 총 35문항이며, '실수에 대한 염려(9문항)', '개인적 기준(7문항)', '부모기대(5문항)', '부모비판(4문항)', '행동에 대한 의심(4문항)', 그리고 '조직화(6문항)'의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요인 중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는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으로,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기대', '부모비판', '행동에 대한 의심'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은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성취목적 및 학문적 효능감

성취목적과 학문적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Midgley et al.(2000)이 개발한 적응적 학습패턴 검사(The Patterns of Adaptive Learning Survey:

PALS) 중 성취목적과 관련한 17문항과 학문적 효능감 6문항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어색한 어휘는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성취목적은 '숙달(5문항)', '수행접근(6문항)', '수행회피(6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학문적 효능감은 단일요인으로 학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자신의 역량에 대한 판단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목적과 학문적 효능감이 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5년 4월부터 12월에 걸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를 우리나라 대학생 수준에 맞게 번안하고 어색한 어휘는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실시는 각 해당대학의 담당교수 또는 검사 실시자에게 연구목적에 맞게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며, 검사지를 연구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포하였다. 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개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다.

라.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Frost의 다면적 완벽주의 검사의 하위요인과 성취목적 검사의 내적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적은 수의 요인을 추출해주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요인구조의 간명함을 위해 사각회전방식인 Oblique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과 변인사이의 상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Bartlett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과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도(MSA: Measure of Sampling Adequacy)를 살펴보았다. 또한 요인분

Table I. Factor Loadings for Frost’s Multidimensions of Perfectionism Subscales (n=228)

Frost’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ubscales	I. Adaptive Perfectionism	II. Maladaptive Perfectionism	<i>h</i> ²
Parental expectations	.52	.35	.54
Organization	-.11	.93	.80
Parental criticism	.93	-.20	.77
Personal standards	.20	.79	.78
Concern over mistakes	.75	.25	.77
Doubts about actions	.76	.01	.59
Percent of variance accounted for	53.07	17.53	

석결과에 따른 각 하위요인의 문항내적 합치도의 지표로 Cronbach의 *a*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의과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성취목적, 그리고 학문적 효능감간의 상호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r*을 구하였다. 셋째, 완벽주의 성향이 성취목적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성취목적이 학문적 효능감에 다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경로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AMOS 5.0을 사용하였다.

구조모형방정식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표집수에 대해 Hoelter (1983)는 200이상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집수 (N=228)는 경로모형 분석을 위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분산구조분석에서의 계수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로 χ^2/df 와 GFI (Goodness-of-Fit Index), 조정적합지수인 A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그리고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또한 제안모형에 대한 부합도 평가를 위한 증분적합지수의 지표로 비표준적합지수인 TLI (Turker-Lewis Index)와 표준적합지수인 NFI (Normed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GFI, AGFI, TLI와 NFI는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RMSEA는 .05이하이면 적합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그리고 .08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가. 완벽주의성향에 대한 요인분석

의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Frost의 다면적 완벽주의의 6개 하위요인에 대한 문항내적 합치도는 .66~.86으로 나타나 집단연구를 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6개 하위 요인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Bartlett 검정결과, $\chi^2=518.52$, $df=15$, $p<.001$ 로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본적합도는 .76으로 Kaiser (1974)가 제시한 적정수준 ($MSA >.60$)을 상회하므로 요인 분석하기에 무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Oblique방식을 사용하여 회전한 결과, 두 개 요인의 고유치 (eigen value)가 각각 1.0이상이었으며, 이들 두 요인이 전체변량의 70.60%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I). 첫 번째 요인에는 ‘부모기대 (parental expectations),’ ‘부모비판 (parental criticism),’ ‘실수에 대한 염려 (concern over mistakes)’ 및 ‘행동에 대한 의심 (doubts about actions)’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이를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에는 ‘개인적 기준 (personal standards)’과 ‘조직화 (organization)’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이를 적응적 완벽주의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향을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Table II. Factor Loading for Achievement Goals Items

(n=228)

Items	I. Performance- Approach	II. Performance- Avoidance	III. Mastery	<i>h</i> ²
M 1	.16	.28	.63	.50
M 2	-.16	-.17	.86	.72
M 3	.08	-.09	.71	.58
M 4	.06	-.06	.65	.47
P 1	.81	.29	.14	.69
P 2	.78	.00	.03	.63
P 3	.60	-.26	.16	.62
P 4	.75	-.13	.05	.66
P 5	.70	-.02	-.03	.49
P 6	.49	-.41	-.02	.51
V 1	-.41	-.49	-.07	.50
V 2	-.01	-.76	.18	.64
V 3	.07	-.79	.01	.66
V 4	.20	-.73	-.06	.64
V 5	-.14	-.76	.06	.55
Percent of variance accounted for	34.99	14.07	9.83	

나. 성취목적에 대한 요인분석 및 하위요인별 문항 내적 합치도

의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Midgley et al. (2000) 이 개발한 성취목적 검사의 3개 하위요인에 대한 문항내적 합치도는 ‘숙달’ 요인이 .72, ‘수행접근’ 요인이 .84, ‘수행회피’ 요인이 .80로 나타나 검사문항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성취목적 검사 문항의 내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Bartlett 검정결과, $\chi^2=1425.85$ df=136, $p<.001$ 로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본적합도는 .87로 Kaiser (1974)가 제시한 적정수준 ($MSA > .60$)을 상회하므로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Oblique 회전방식을 사용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2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문항의 요인부하량 (factor loading)이 .4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집수가 200인 경우, 유의미한 요인부하량은 .40 (Hair et al., 1998, p.112) 이므로, 요인부하량이 .40 미만인 2개 문항을 제외 한 나머지 15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재실시 하

였다(Table II).

요인추출 방법과 요인회전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주성분분석과 Oblique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세 개 요인의 고유치가 각각 1.0이상이었으며, 이들 세 요인이 전체변량의 58.89%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II). 첫 번째 요인에는 ‘수행접근’ 관련 6개 문항이, 두 번째 요인에는 ‘수행회피’ 관련 5개 문항이, 세 번째 요인에는 ‘숙달’ 관련 4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이와 같은 세 요인구조는 Midgley et al. (2000)이 개발한 검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요인의 문항내적 합치도는 각각 ‘숙달’ 요인이 .71, ‘수행접근’ 요인이 .84, ‘수행회피’ 요인이 .82로 나타나, Nunnally (1994)가 주장한 연구목적에 위한 문항내적합치도의 적정치 (Cronbach’s $\alpha=.70$)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취목적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숙달’ 요인, ‘수행접근’ 요인, 그리고 ‘수행회피’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Table III.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Inter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M	SD	Perfectionism		Achievement Goals		
			1	2	3	4	5
1. Adaptive	3.24	.57	-				
2. Maladaptive	2.87	.52	.50***				
3. Mastery	2.96	.66	.35***	.18**			
4. Performance-Approach	3.21	.68	.59***	.50***	.43***		
5. Performance-Avoidance	2.59	.69	.30***	.54***	.23**	.49***	
6. Academic Efficacy	3.21	.62	.59***	.31***	.54***	.50***	.21**

n=228, ***p<.001,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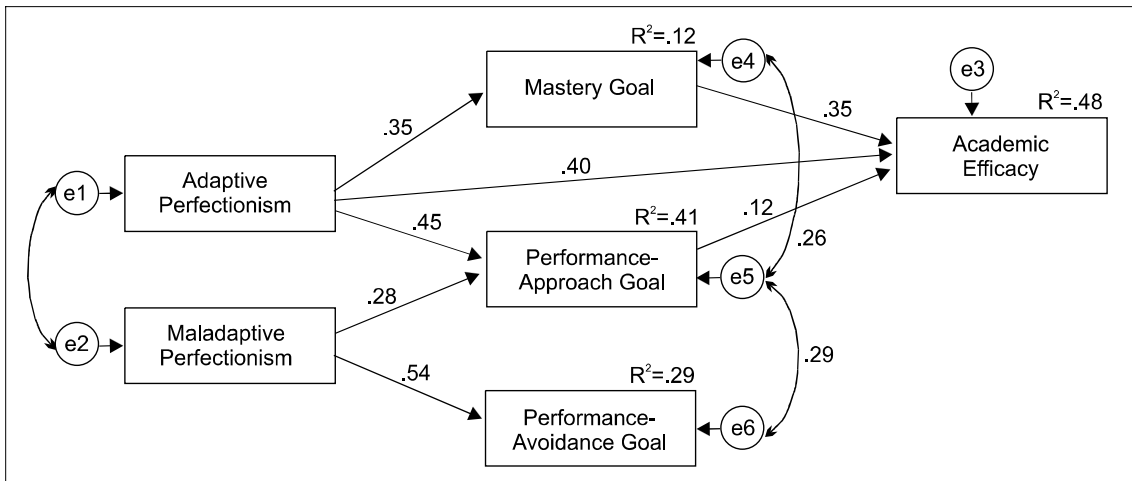


Fig. 1. The path model showing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and achievement goals on academic efficacy

다. 완벽주의, 성취목적 및 학문적 효능감간의 상호 상관

각 변인별 상호상관 분석결과 (Table III), 적응적 완벽주의 요인은 성취목적의 하위요인 중 중 수행 접근 요인 (r=.59, p<.001) 그리고 학문적 효능감 (r=.59, p<.0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적응적 완벽주의 요인 (r=.50, p<.001)과 숙달 요인 (r=.35, p<.001)과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적 완벽주의 요인은 수행회피 요인 (r=.30, p<.001)과는 가장 낮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부적응적 완벽주의 요인은 수행회피 요인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 (r=.54, p<.001)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요인은 수행접근 요인과도 비교적 높은 상관 (r=.50, p<.001)을 보인 반면에, 학문적 효능감 요인 (r=.31, p<.001)과 숙달 요인 (r=.18, p<.01)과는 비교적 낮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목적 지향의 하위요인 중 숙달 요인은 수행접근 요인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 (r=.43, p<.001)을 보였으며, 학문적 효능감 요인 (r=.54, p<.001)과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숙달 요인은 수행회피 요인과는 가장 낮은 정적 상관 (r=.23, p<.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접근 요인은 학문적 효능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 (r=.50, p<.001)을 보였으며, 수행회피 요인과도

Table IV.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for Structural Paths

Regression Weights	Unstandardized estimates	Standardized estimates	S.E.	Critical Ratio
Performance Approach ^a ← Adaptive ^b	.53***	.45	.07	8.01
Performance Approach ^a ← Maladaptive ^b	.36***	.28	.07	4.95
Mastery ^a ← Adaptive ^b	.40***	.35	.07	5.60
Performance-Avoidance ^a ← Maladaptive ^b	.71***	.54	.07	9.68
Academic Efficacy ← Adaptive	.43***	.40	.07	6.55
Academic Efficacy ← Mastery ^a	.33***	.35	.50	6.52
Academic Efficacy ← Performance Approach ^a	.11*	.12	.06	1.99

^aAchievement Goals, ^bPerfectionism, ***p<.001, *p<.05.

정적 상관 (r=.49, p<.0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회피 요인은 학문적 효능감과 가장 낮은 정적 상관 (r=.21, p<.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경로모형 검증결과

의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완벽주의 성향, 성취목적, 학문적 효능감간의 공변량 행렬을 분석한 결과, $\chi^2=7.02$, df= 5, p>.05, 적합지수 (GFI)는 .990, 조정적합지수 (AGFI)는 .958, TLI는 .987, NFI는 .986, 그리고 RMSEA는 .042로 경로모형이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 성취목적 지향 및 학문적 효능감간의 경로모형 (Fig. 1)에서, 검정통계량 (CR: Critical Ratio)이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계수는 아래의 경로모형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표준화 경로계수 중 .12 (수행접근 → 학문적 효능감)는 $\alpha=.05$ 수준에서, 그리고 나머지 표준화 경로계수는 $\alpha=.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IV).

본 연구결과, 완벽주의 성향은 성취목적에, 그리고 성취목적 중 숙달 요인과 수행접근 요인은 학문적 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 성향의 하위요인 중 적응적 완벽주의 요인은 성취목적의 하위 요인 중 수행접근 (.45)과 숙달 (.35) 요인에 영향을 주며, 학문적 효능감 (.40)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적응적 완벽주의 요인은 성취목적의 하위요인 중 수

행회피 (.54)와 수행접근 (.28)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목적의 하위요인 중 숙달 (.35)과 수행접근 (.12) 요인은 학문적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행회피 요인은 학문적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 대학생의 학문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완벽주의 성향과 성취목적에 대한 직·간접 효과와 총효과는 다음 Table V와 같다. 학문적 효능감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력은 총효과이며, 총효과는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뉜다. 직접효과는 학문적 효능감과 완벽주의 성향 혹은 성취목적의 하위요인간의 직접적인 경로계수를 의미한다. 본 경로모형에서 적응적 완벽주의 요인이 학문적 효능감 요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취목적의 하위요인 중 숙달요인과 수행접근 요인이 학문적 효능감 요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각각 .35와 .12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는 완벽주의 성향이 성취 목적을 거쳐 학문적 효능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계수를 의미한다. 완벽주의 성향의 하위요인 중 학문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가장 큰 요인은 적응적 완벽주의 (.17)이며,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학문적 효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3으로 나타났다. 본 경로모형이 학문적 효능감의 총 변량 중 48.0%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V. The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standardized beta weights) of Perfectionism and Achievement Goals on Academic Efficacy

Predicting Variabl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Perfectionism	Adaptive	.40	.17	.57
	Maladaptive	-	.03	.03
Achievement Goals	Mastery	.35	-	.35
	Performance-Approach	.12	-	.12
	Performance-Avoidance	-	-	-

고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완벽주의, 성취목적 및 학문적 효능감의 하위요인간 상호상관, 그리고 학문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완벽주의 및 성취목적의 하위요인에 대한 경로모형을 중심으로 한 논의와 본 연구의 제한점 그리고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가. 완벽주의, 성취목적 및 학문적 효능감의 하위요인간 상호상관

본 연구에서는 의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완벽주의와 성취목적의 하위요인 그리고 학문적 효능감간의 상호상관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완벽주의의 성향은 성취목적 및 학문적 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의 연구 (Accordino et al., 2000; Dunn et al., 2002; Gutman, 2006; McArdle & Duda, 2004)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적응적 완벽주의의 성향을 지닌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며, 상황에 따라 실수를 범한다 해도 이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다 하겠다 (Dunn, et al., 2002).

이러한 적응적 완벽주의의 성향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성향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유능감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과제를 완수하고자 하는 숙달 요

인과 더불어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입증해 보려는 것에 중점을 두는 수행집근 요인과 보다 더 높은 유의미한 관련을 맺고 있기도 하다. 반면에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성향을 지닌 학생들은 높게 설정된 기준에 부응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걱정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을 때 습관적으로 낙담하는 성향을 지닌다 (Kottman, 2000). 이러한 부적응적 완벽주의 요인은 성취목적 중 수행회피 요인과 가장 높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미화·류진혜 (200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성향이 자신의 무능함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데 초점을 둔 수행회피 요인과 유의미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보다는 적응적 완벽주의의 요인이 학문적 효능감 요인과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응적 완벽주의의 성향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기준에 도달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며,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한다 해도 쉽게 낙담하지 않으므로, 학문적 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적응적 완벽주의와 일관적인 자기 효능감간의 관계를 종교관련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Hart et al. (1998)의 연구결과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O'Brien & Page (1994)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하며, 이들 선행 연구들

간에도 이들 변인들 간의 관련성에 대해 일치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Hart et al. (1998)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Hewitt & Flett의 완벽주의 척도가 자기효능감과 관계의 제대로 규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의과 대학생들의 성취목적과 학문적 효능감간의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취목적의 하위요인 중 숙달 요인과 수행접근 요인이 학문적 효능감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avaco et al. (2003)의 연구결과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결과들(Breland & Donovan, 2005; Mangos & Steele-Johnson, 2001)을 지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취목적의 하위 요인들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수행접근 요인은 숙달 요인 그리고 수행회피 요인 모두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Elliot & Church (1997)의 연구결과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Smith et al. (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수행접근 요인은 자신의 유능감 계발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특성들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숙달 요인은 자신의 유능감 계발에, 수행회피 요인은 자신의 무능함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각각의 단일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Elliot & Church, 1997). 따라서 수행접근 요인이 숙달 요인과 수행회피 요인 모두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행접근 요인과 수행회피 요인이 정적 상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몇몇의 연구결과(Elliot & Church, 1997; Middleton & Midgley, 1997; Smith et al., 2002)와 일치하는 것으로 두 요인 모두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를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즉 두 요인 모두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 질 것인지(Smith et al., 2002)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있다 하겠다.

나. 완벽주의, 성취목적 및 학문적 효능감의 하위요인 인간 경로모형

의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성취목적 및 학문적 효능감간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적응적 완벽주의는 학문적 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며, 성취목적의 하위요인 중 숙달 요인과 수행접근 요인을 거쳐 학문적 효능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은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높은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또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희열을 느낀다(Pacht, 1984). 이러한 이들의 성향이 학문적 효능감을 향상시키게 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성과(Elliot & Church, 1997)를 낳게 하는 숙달 또는 수행접근 목적 지향적인 성향을 지니게 하는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학문적 효능감 향상을 가져오게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숙달 지향적 목적이 학문적 효능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Gutman (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하겠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 요인은 수행접근 요인을 거쳐 학문적 효능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학생들은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서있으며,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며, 또한 정서적으로 지쳐있기도 하다(Hamachek, 1978). 이들은 또한 설정된 기준 또는 목표 도달을 위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므로(Arthur & Hayward, 1997), 자신의 능력에 대한 비호의적인 판단을 회피하려는 수행회피 목적 지향적인 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이들의 수행회피 성향으로 인해 학문적 효능감 향상은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의과 대학생들 중에는 수행접근 목적 지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들은 수행회피 목적 지향적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과는 달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호의적인 판단을 얻고자 노

력한다. 이러한 이들의 수행접근 지향적 성향이 숙달 지향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에 비해 미약하긴 하나 자신의 학문적 역량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다.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시간압박, 빈번한 평가, 전공생들간의 경쟁 및 과도한 정보에 대한 기계적 암기 등과 같은 심한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의과 대학생(Henning et al., 1998)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다른 일반 전공 대학생들이나 성인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전공계열별에 따른 이들 변인들간의 경로모형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참여 학생의 수가 228명에 불과하므로, 성별 및 학년별에 따른 의과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 성취목적 및 학문적 효능감간의 관계모형을 탐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별 및 학년별에 따른 이들 변인간의 관계모형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각 집단별 적절 표집수인 200명이상(Hoelter, 1983)의 연구 참여 학생수를 표집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적응적 완벽주의는 성취목적 중 숙달 요인에, 그리고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수행회피 요인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응적, 부적응적 완벽주의 모두 수행접근 요인에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의과 대학생들과 더불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의과 대학생들도 자신의 유능함을 타인에게 입증해 보이려는 것에 중점을 두는 수행접근 지향적인 성취목적을 지닐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적응적,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수행접근 목적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추후연구가 요망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의과 대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특성들이 안정적인지 신뢰로운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 3자의 관찰 평정을 포함한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 셋째, 의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완벽주의, 성취목적 및 학문적 효능감간의 관계모형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후연구가 요망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의과 대학생들은 자신의 유능감 계발 및 과제숙달을 위해 전념하는 숙달 목적 지향적이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수행접근 목적 지향적인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이들의 성취목적 성향이 학문적 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의과 대학생들로 하여금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이미화·류진혜(2002).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성취목적,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 우울에 관하여. *청소년학연구*, 9(3), 293-316.
- Accordino, D.B. et al.(2000). An investigation of perfectionism, mental health, achievement,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7(6), 535-545.
- Arthur, N., & Hayward, L.(1997).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standards for academic achievement, and emotional distress in postsecondary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8(6), 622-632.
- Bieling, P.J. et al.(2004). Is perfectionism good, bad, or both? Examining models of the perfectionism constru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6), 1373-1385.
- Breland, B.T., & Donovan, J.J.(2005). The role of state goal orientation in the goal establishment process. *Human Performance*, 18(1), 23-53.

- Cavaco, A. et al.(2003).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efficacy perception amongst portuguese pharmacy students. *Pharmacy Education*, 3(2), 109-116.
- Dunn, J.G.H. et al.(2002).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goal orientation in sport.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4(4), 376-395.
- Dyrbye, L.N. et al.(2005). Medical student distress: causes, consequences, and proposed solutions. *Mayo Clinic Proceedings*, 80(12), 1613-1622.
- Elliot, A.J., & Church, M.A.(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1), 218-232.
- Enns, M.W. et al.(2001).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in medical studen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Medical Education*, 35(11), 1034-1042.
- Frost, R.O. et al.(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Frost, R.O. et al.(1993).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119-126.
- Gutman, L.M.(2006). How student and parent goal orientations and classroom goal structures in fluence the math achievement of african americans during the high school transi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1(1), 44-63.
- Hair, Jr. J.F. et al.(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 Hart, B.A. et al.(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self-effica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1), 109-113.
- Hamachek, D.E.(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2), 27-33.
- Henning, K. et al.(1998). Perfectionism, the impostor phenomen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medical, dental, nursing and pharmacy students. *Medical Education*, 32(5), 456-464.
- Hoelter, J.W.(1983).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Goodness-of-fit indic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1(3), 325-344.
- Kaiser, H.F.(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31-36.
- Kottman, T.(2000). Perfectionistic Children and Adolescents: Implications for School Counselor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3(3), 182-188
- LoCicero, K.A., & Ashby, J.S.(2000).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self-reported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5(2), 47-56.
- McArdle, S., & Duda, J.L.(2004). Exploring social-contextual correlate of perfectionism in adolescents: a multivariate perspectiv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6), 765-788.
- Mangos, P.M., & Steele-Johnson, D.(2001). The role of subjective task complexity in goal orientation,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relations. *Human Performance*, 14(2), 169-186.
- Middleton, M.J., & Midgley, C.(1997). Avoiding the demonstration of lack of ability: an underexplored aspect of goal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4), 710-718.
- Midgley, C. et al.(2000). *Manual for the patterns of adaptive learning scales*. MI: University of Michigan.
- Nunnally, J.C., & Bernstein, I.H.(1994). *Psychometric Theory*(5th ed). NY: McGraw-Hill.
- O'Brien, S., & Page, S.(1994). Self-efficacy, perfectionism, and stress in canadian nurses. *Canadi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6(3), 49-61.
- Pacht, A.R.(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4), 386-390.
- Smith, L. et al.(2002). Students' goals, self-efficacy, self-handicapping and negative affective respon-

의과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취목적 및 학문적 효능감간의 관계

ses: an Australian senior school student study.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7(3), 471-485.

Wolters, C.A.(2004). Advancing achievement goal

theory: using goal structures and goal orientations to predict students' motivation, cognition, and achievement .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2), 236-250.